

오락가락 트럼프, 김정은 상태 아나 모르나

모른다→잘 안다→잘 있길
CNN 보도 이후 계속 말 바뀌어
특유의 부정확 화법 혼선 증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정례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저 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의 회동 자리에서 한 기자가 ‘김 위원장이 북한을 통제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말할 수 있는지’라고 묻자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답변 과정에서 “나는 그것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최근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김 위원장의 근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전날만 해도 김 위원장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장담한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묻는 후속 질문에 답을 피하며 말을 아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김 위원장이 수술을 받고 중태에 빠졌다는 미국 CNN 방송 보도가 나온 이후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묻는 말에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해왔다.

21일에는 백악관에서 개최한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관련해 “우리는 모른다”, “나는 그가 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이를 뒤에는 CNN 보도가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23일 코로나19 TF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 보도가 부정확하다고 본다. 나는 그 보도가 부정확한 방송사에 의해 이뤄진 거라고 본다”면서 CNN 기자가 앉아 있는 쪽을 손으로 가리켰다.

그러면서 “그들(CNN)은 오래된 문서를 썼다고 듣고 있다”면서 “그 보도는 부정확한 보도라고 한다. CNN이 한 허위 보도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CNN이 참고했다는 ‘오래된 문서’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가장 최근인 27일에는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해 새로운 정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매우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지금 이야기할 수 없

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그가 괜찮기를 바란다”, “나는 그가 어떻게 지내는 지 비교적 알고 있다”, “아마 머지않은 미래에 여러분은 (김 위원장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소 진전된 듯한 이날 발언을 두고 미 정보당국이 김 위원장의 구체적인 동향을 파악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에는 다시 건강에 문제가 없기를 바란다는 원론적인 대답 수준으로만 모호하게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구사해온 특유의 과장 화법 내지는 부정확한 발언을 지속하는 습관 등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일련의 발언이 오히려 혼선을 증폭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잇달아 북한에 특이 동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 건강과 외교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최근 일련의 관련 보도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관찰된다”고 밝혔다.

같은 날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과 관련해) 특이 동향이 없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설 조 바이든(왼쪽) 전 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온라인 타운홀 행사에 함께 참석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자신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자 주먹을 불끈 친 채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힐러리, 바이든 지지 선언…“그의 리더십 필요”

지난 2016년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섰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올해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힐러리 전 장관은 이날 바이든 전 부통령과 함께 개최한 온라인 타운홀 행사에서 “지금은 조 바이든 같은 리더, 대통령이 필요한 순간”이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만 거명하지 않았을 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대통령의 대응을 비판하면서 바이든과 비교하는 식으로 맹공에 나섰다.

힐러리 전 장관은 “만약 우리에게 허구를 넘어 사실을 갖고 과학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대통령이 있다면 지금 당장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지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또 “단지 TV에 출연하는 누군가가 아닌 진정한 대통령이 있다면 그게 어떤 의미

일지 생각해 보라”면서 전직 부통령이자 6선 상원의원인 바이든은 이 순간을 평생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4년 전 대선에서 여성 최초의 대선 후보로 나섰던 힐러리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어 총투표 수에선 앞섰지만, 주요 경합주를 빼앗겨 선거인단 수에서 밀려 패배했다.

AP는 최근 몇 주 동안 바이든은 오바마 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지지를 받고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같은 진보주의자들의 지지까지 받았으면서 “바이든을 둘러싼 신속한 단합은 4년 전 힐러리가 좌익 유권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 못했던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재선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인 브래드 파스케일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를 한 번 이겼고 이제는 그녀가 선택한 후보를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日 코로나 신규 확진 282명…증가폭 다시 커져

긴급사태 연장 가능성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단위 확진자 증가폭이 다시 커지는 추세로 돌아섰다.

NHK 집계에 따르면 28일 하루 동안 도쿄에서 112명의 확진자가 발표되는 등 전국 29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에서 총 282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일본의 누적 확진자 수는 크루즈선 탑승자(712명)를 포함해 1만

4607명이 됐다.

일본의 하루 단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폭은 지난 22-24일 400명대를 유지하다가 25일 300명대, 26일 200명대, 27일 100명대로 떨어진 뒤 28일 다시 200명대로 올라섰다.

28일까지 증상이 호전돼 퇴원한 사람 등은 확진자의 26% 수준인 3838명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사회는 전국에 선포된 긴급사태를 지역별로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연합뉴스



이탈리아판 ‘성수대교’ 2년만에 재건 2018년 4월 붕괴 사고로 43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탈리아 제노바 모란디 대교가 28일(현지시간) 새 교량으로 재건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반도 8개 크기 북극 오존 구멍 사라졌다

극소용돌이가 주요 원인
코로나19와는 관련 없어

북극 지방에 형성됐던 한반도 8배 크기의 초대형 오존 구멍이 말끔하게 사라졌다.

CNN방송과 과학 전문 매체 라이브사이언스 등은 28일(현지시간) 대기질 변화를 측정하는 유럽우주국의 ‘코페르니쿠스 대기 모니터링 서비스’(CAMS)를 인용해 북극의 오존 구멍이 마침내 닫혔다고 보도했다.

오존 구멍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오존층이 각종 오염 물질에 의해 파괴되는 현상으로, 남극이 아닌 북극에서 초대형 오존 구멍이 관측된 것은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특히 지난달 하순 발견된 북극의 오존 구멍은 이달 초에는 160만km² 크기로 커졌다. 이는 한반도 전체 면적(22만km²)의 8배와 맞먹는 크기로, 1982년 북극

에서 오존층 관측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였다.

하지만, 북극의 오존 구멍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닫혔다.

다만, 오존 구멍이 사라진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동 중단이나 대기 질 변화와는 관련이 없었다.

CAMS는 “인간의 의식적 활동 때문에 북극의 오존 구멍이 닫힌 게 아니다”라면서 북극의 오존 구멍이 만들어지고 사라진 것은 ‘극소용돌이’(polar vortex·남극과 북극 상층에서 회전하는 강한 저기압 덩어리) 때문이라고 밝혔다.

CAMS에 따르면 지난달 북극에는 전례 없이 강력한 극소용돌이가 형성되며 북극 상공에 오염 물질을 가뒀고, 이는 오존층 파괴로 이어졌다.

하지만 최근 소용돌이가 약해지자 오존 물질이 풍부한 중위도의 공기가 북극으로 유입됐고, 오존 구멍도 자연스럽게 닫히게 됐다. /연합뉴스

美 보건당국자 “가을에 코로나19 2차 유행 거의 확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라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2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2차 유행이 발생할 것으로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파우치 소장은 이날 화상 회의로 진행된 미 워싱턴DC의 ‘이코노믹 클럽’ 행사에서 올해 미국에서 코로나19의 2차 유행

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나는 그것(코로나19)이 돌아올 것이라고 거의 확신한다”고 말했다.

파우치 소장은 남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점을 들어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다면 “그것은 지구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